

신안군 “천일염 7월 본격 출하…김장철까지 공급 차질 없어”

저장·보관 중인 천일염 물량만도 12만t 넘어
 “품귀·소금대란 없어…추측성 보도 동요 말라”

신안군은 19일 “비금·도초·남신안 등 관내 6개 농협에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햇소금 출하를 계획하고 있으며 김장철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봄철 강우 일수 증가로 천일염 생산량이 평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6월부터는 기상여건이 양호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신안군천일염생산자연협회 이철순 회장도 지난 15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천일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생산을 독려하고, 정부와 군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신안군은 연일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천일염 품귀현상’과 ‘소금대란’을 없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농협에 저장 중인 2021년, 2022년산 천일염만 해도 2만t이 넘고, 올해 생산해 생산자 개인창고에 보관 중인 천일염이 약 10만t을 넘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날씨가 좋은 날

엔 하루에 2000t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공급량 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안 천일염의 농·수협 온라인(택배) 판매 중단은 양파·마늘의 정채수매 일정과 갑작스런 주문 폭주(100배)로 포장인력 부족과 물류업체의 물량 과다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농협에서는 양파·마늘의 수매가 완료되는 오는 23일 이후부터는 인력을 총원해 유통하고, 햇소금도 본격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음 달 (천일염) 본격 출하가 시작되면 올해 김장하는데 지장없다. 연일 불확실한 추측성 언론보도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면서 “고품질의 신안천일염을 산지에서 적정 가격에 구입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군에서는 749어가, 2367ha에서 매

년 4-10월 연평균 약 23만t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경찰,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전남 최초

평화광장 등 5개소 설치 완료

목포경찰서는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로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교통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교통단속카메라)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22년 12월부터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담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경찰서와 목포시에서는 올해 초 조기 도입을 추진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지점은 관내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평화광장 앞 남악 방향과 갓바위 방향 ▲삼학로 에스오 일 앞 ▲남악로 골드클래스 앞 ▲고하대로 연산동교차로 등 5개소 8대이다.

목포경찰청과 목포시는 올 해 안에 하남구역 등에 4개소 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목포경찰서와 목포시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으로 일반차량과 함께 특히 빈번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수요일입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재명 “정치수사에 불체포권리 포기…영장청구시 심사받을 것”

본인 사법리스크·민주 방탄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갑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도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며 사정기관의 수사 및 감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씩 웃고 칼을 휘두른다”며 “완장 찬 감시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비명계가 ‘사법리스크’로 당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나온 ‘방탄’ 비판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4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특히 이 대표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내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왜 이 시점에 결단했는지 묻는 질문에 “정쟁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당이나 정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가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답했다.

변용일기자

건강한 밥상의 시작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